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일본어와 한국어!

- '～しないでね。'는 한국어로 '-지 않고네'인가?

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'한국어는 일본어하고 비슷하다'는 선입관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.

여러분들은 혹시 한국어로. "（明日の約束）忘れないでね～"라는 뜻으로 "(내일 약속) 잊지 않고네~"라고 써 보신 적은 없는지요? 이 실수는 초급을 끝낸 한국어 학습자가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즉 일본어의 '忘れない[で][ね]'의 'で('て' 의 이형태)'와 'ね'를, 한국어의 접속어미 '-고'와 감탄의 '-네'라고 착각해서 조합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. 저는 초급 학습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이 문장 표현이 참 귀엽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이 표현은 안타깝게도 맞는 문장이 아닌데요. 그 이유는 한일언어의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바로 일본어의 '～しないで'를 가지고 한일언어 표현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

① 昨日は朝食をとらない[で]コンサート場に行きました。

② 明日はみんなで一緒に食べるから朝食はとらない[で]（ください）ね。

다음 두 문장을 볼까요? '①昨日は朝食をとらないでコンサート場に行きました。' '②明日はみんなで一緒に食べるから朝食はとらないで（ください）ね。'.

①은 '아침을 먹지 않은 (朝食をとっていない)' 사실과 '콘서트장에 간 (コンサート会場に行った)' 사실 두 개를 'で'로 연결하고 있지만 ②의 'で'는 뒤에 오는 'ください'와 관계가 있아요. ②의 'とらないで'의 'で'는 '～しないでください（ほしい）'에서 '～てください（ほしい）' 같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쓰는 표현이 생략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학습자는 ①의 'で'와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.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

다. ①의 경우 '먹지 않다 (食べない) '와 '-고'를 조합해서 '어제는 아침을 먹지 않[고] 콘서트장에 갔어요'를 쓸 수 있지만, ②의 경우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'금지' 할 때는 동사 어간 뒤에 '-지 말다 ('마세요/ 마요/마'로 활용)'를 써야 합니다. 따라서 ②는 '내일은 다 같이 먹을 테니까 아침을 먹[지 마].'처럼 말해야 해요. '忘れないでください'는 '잊지 마세요', 친구나 친한 사이라면 '잊[지 마]' 또는 '-고'를 써서 '잊[지 말][고]'처럼 '-지 말다'가 필수입니다.

이처럼 일본어를 한국어로 생각할 때는 모국어인 일본어의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. 참, 일본어의 'ね'는 한국어의 '-네(요)'로 바꿔 쓸 수 있을 때가 많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?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오늘 내용 '잊지 마세요~'.

박천홍 (도쿄대학교)